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으로 건강 챙기세요

쌀귀리·연근·여주·녹차·황칠·김·토하젓·전통장류 등 스토리북 배포하고 전용포장재 제작 등 본격 홍보 나서

“강진을 대표하는 건강 10대 농식품을 아시나요.” 강진군이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을 개발하고 홍보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소비자들에게 강진군 건강 10대 농식품을 친숙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스토리북(사진)을 제작했다. 스토리북은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10대 농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군은 앞서 소비자에게 신뢰받은 전국 1

등 농수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강진 농업의 백년대계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을 탄생시켰다.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은 쌀귀리, 딸기, 토마토, 연근, 여주, 녹차, 황칠, 지주식김, 토하젓, 전통장류이다. 이어 군은 향토유성사업 등 국도비 유치로 제품가공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생산 기반조성과 10대 농특산물 전용포장재 지원, 신문·TV 홍보광고와 초록민음과 연계한 대중버스 광고, 고객 맞춤형 소비자 만족행사 등 감성문화 마케팅을 통한 전



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스토리북 제작을 계기로 홍보와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보책자는 해당 실·과·소 사무실과 읍·면 사무소는 물론 '2018 강진만 A로의 초대'와

연계해 가우도 출렁다리와 마량놀토수산시장 등 주요 관광지에도 비치해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농식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강진건강 10대 농식품을 시·군·구·읍·면·동과 체험관광, 팜파티, 팜투어, 그리고 감성문화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성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전국 1등 농수산물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와 연계해 10대 농식품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강진만의 특별하고 유일한 강진 10대 농식품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K-water 서남권지사 '장흥 물드림 봉사단' 발대식

K-water 전남서남권지사는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유·청소년 재능기부 봉사단인 '제2기 장흥 물드림 봉사단' 발대식(사진)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발대식에는 장흥군과 관내 교육기관인 전남도장흥교육지원청, 장흥고, 정남진산업고, 장흥중, 장흥여중, 장흥초, 국립장흥효성어린이집·유치원, K-water 장흥수도관리단 및 복지단체인 장흥종합사회복지관과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이 참여해 올 한 해 동안 원활한 봉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 물드림 봉사단'은 지난해 K-water 최초이자 장흥지역 최초로 창단된 지역 미래세대 재능기부 봉사단으로 올해에는 관내 140여명의 유·청·중·고 교생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은 장흥에서 근무 중인 K-water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사랑앓기금' 등 1200여만원을 지원받아 벽화, 밴드, 기악, 댄스, 웃음, 교육, 효사진 등 9개 분야에 대한 동아리별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연중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사물인터넷 등 축산 신기술 보급

장흥군이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다양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스마트팜 등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 물먹는 횟수, 발정, 분만장후 감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FTA 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한우의 성장단계별 체중장 특성상 농식품 부산물의 영양소 함량을 고려한 사료 배합비 적정 기술을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양봉농가 경쟁비 및 노동력 절감 사양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비 절감 사업이다. IOT 활용 한우 번식효율 향상 시범사업은 소의 위(胃)내에 바이오센서를 삽입해 사육관리를 효율화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 물먹는 횟수, 발정, 분만장후 감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FTA 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한우의 성장단계별 체중장 특성과 농식품 부산물의 영양소 함량을 고려한 사료 배합비 적정 기술을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양봉농가 경쟁비 및 노동력 절감 사양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비 절감 사업이다. IOT 활용 한우 번식효율 향상 시범사업은 소의 위(胃)내에 바이오센서를 삽입해 사육관리를 효율화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 물먹는 횟수, 발정, 분만장후 감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中 무화과산업연맹과 교류행사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 산업특구로 지정된 전남 영암 무화과가 국내를 넘어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 무화과산업연맹(이사장 짜오홍유) 소속 회원 12명과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문정훈 교수)팀이 영암을 찾아 중국의 무화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를 가졌다. 영암과 중국 무화과 산업 소개, 영암 무화과 가공공장 견학 및 영암무화과유

강진군 영농철 맞아 마을 공동급식 확대

강진군은 농번기철 농촌지역의 고령화·여성화 현상으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 공동급식은 농산물 파종과 수확 시기 등 농번기철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이 모여 점심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30일, 한 끼당 270만원 이내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강진군은 지난해보다 3800만원을 증액해 1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마을이 늘어난 총 60개 마을에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강진군 도암면 덕촌마을 서정대 이장은 “농사일이 바쁘고 힘은 들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 공동급식 제도는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걸 넘어서 즐거움과 정을 먹는 시간이다”며 “농사일이 물리는 바쁜 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동급식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농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하는 등 마을 공동체 문화형성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지난 2014년부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올해 처음 진행된 나이트 드림 행사에서 한지등을 든 관광객들이 강진군의 밤 풍경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강진의 밤 풍경에 빠지다

관광객 60여명 참여

강진의 아름다운 밤(야간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이 최근 60여명의 관광객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이트 드림은 강진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 보고, 느끼고, 즐길 것들이 많다는 것

을 관광객에게 알려 숙박을 유도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처음 진행된 나이트 드림은 강진의 주요 관광지 및 야간경관 명소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자들은 가우도와 오감동, 세계모란공원, 강진호수공원 등을 둘러보고 야간에 한지등을 들고 세계모란공원을 찾아

차시음과 강진호수공원 버스킹 공연 관람, 소망풍등 날리기 등 다채롭고 감성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즐겼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임석 대표는 “나이트 드림은 단체관광과 주간 위주의 관광에 야간관광을 더했다”며 “강진군 관광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영암군 '교통문화지수' 우수도시 선정

영암군이 '2017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교통 문화 우수 도시로 선정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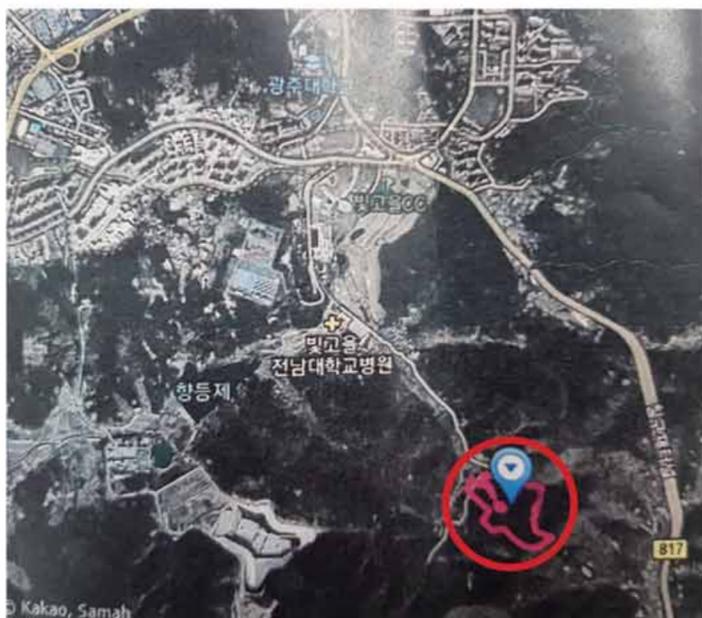
교통문화지수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평가한 결과로 올해 평가는 시민

들의 운전형태, 보행형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으로 지자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율, 교통안전노력도, 현장조사 등을 통한 11개 조사항목에서 실시했다.

영암군은 그동안 경찰서, 영암교육청, 모범안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차로 및 스쿨존 주변에서

교통질서제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CC-TV 및 신호등 신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해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3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8-1230